

어린이 찬불가 경연
20일 부산교대에서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오는 20일 부산교육대학 체육관에서 제9회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를 갖는다.

이번 경연에는 독창부문 남·여 11개팀, 중창부문 보·국·사·의 9개팀, 합창부문 관음사의 8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교중국어강좌 개강
매주 3회 녹수청산서

장애인 스님 후원기금 마련을 위한 포교중국어 강좌가 지난 14일 본사 지하 녹수청산에서 개강했다.

기초과정, 백유경등을 점차적으로 배우게 되는 이 강좌는 현대중국어연구소 미영순교수가 지도한다.(매주월,수,금 오후 7시 30분) 기초반 3개월의 수강료는 3만원.

석굴암 태양 형상화
운동구씨 설치전

운동구씨의 설치미술전이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나산 갤러리(724-8148)에서 열린다. 설치 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다져가는 운동구씨는 이번 전시에서 석굴암에 태양이 비치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무제 1994」를 선보이고 있다.

어머니 합창단 모집
불교방송 30일까지

불교방송은 어머니 합창단 창단 단원 108명을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단원 선발은 1차 서류전형, 2차 공개오디션, 3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나이나 학력, 성별 등의 제한 없이 불을 전파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문의: 705-5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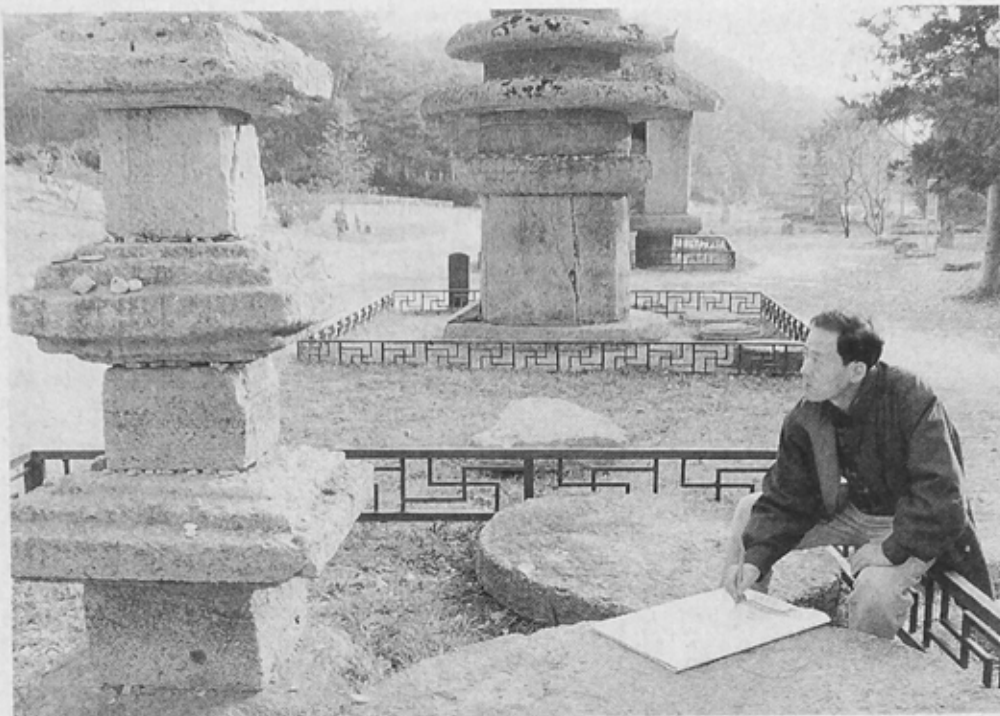
「스님, 꽃필름...」 출판중단
자유문학사, 허구 사과

지난해 열반한 성철스님과 관련된 「스님, 꽃필름 날이 멀었습니까?」를 출판해 불의를 빚었던 자유문학사는 최근 고계신문에 사과공고를 게재, "이 책의 내용이 허구임은 물론 저자의 일방적 창작에 의해 기술된 것으로 큰스님의 위상을 훼손시키고 사부대중의 심리를 까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인사측은 이에 앞서 「스님, ...」의 내용이 왜곡되었음을 지적하고 출판사에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자유문학사는 사과공고를 통해 출판된 도서의 폐기와 재발행 중지를 약속했다.

미완의 천불천탑 붓으로 완성한다

운주사에 깃든 염원 그리는 강연균 화백



관주/임연태 기자

미완성의 운주사 천불천탑을 그림으로 완성할 것을 발원한 중견 화가가 있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연균 화백. 그는 지난해 30년간의 작품 활동을 정리하는 전시회를 서울과 광주에서 가졌다. 또 작품과 화가의 길을 향해 뛰은 두툼한 화집도 발간해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강연균 화백은 자신의 화업 30년을 정리하고 나니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크게 몰려와 새삼스런 방향을 해야 했다. '이제 또 무엇을 그릴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강화백은 그 방향을 오래할 필요가 없었다.

20여년전에 들었던 운주사의 계곡이 생각났던 것이다. 무박한 부처님상과 정갈이 솟는 탑들. 그 무질서 속에 깃든 소박한 염원들이 강화백의 탐빈 가슴에 새로운 의욕으로 솟구쳤

“누워 있는 부처님 그림으로 일으킬 터”

던 것이다. “운주사의 부처님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곳의 탑들은 우리들의 삶과도 닮아 있다고 봅니다. 그 소외된 듯한

다양한 각도로 접근

의로움 사이로 피어나는 희망의 염원들이 우리를 사는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요”

강화백은 우리들의 얼굴을 운주사의 불상과 탑을 통해 그리고 그리는 것이다.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데도 일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수채화로 그리고 싶으면 수채화로, 또 유화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유화로, 드로잉을 하고 싶은 것은 드로잉으로 그리기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림의 크기도 손바닥만한 것에서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크기의 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상중이다. 운주사의 불상과 탑들이 크고 작기가 제각기 다르고 서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림도 그렇게 그리고 싶다는 것이다. 강화백은 아직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일주일당 3~4번씩 운주사 계곡을 찾아가 스케치를 한다. 찾아 가는 시간도 매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햇빛의 광선 각도에 따라 탑과 불상의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요즘은 오후 3시경의 탑과 불상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조형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의 각도입니다. 아침에 보는 탑과 저녁무렵에 보는 탑은 아주 다릅니다. 그 다른 이미지를 그림으로 다양하게 그리고자 합니다”

메마른 풀더미 사이로 쌓아진 탑들을 그리고 또 싱그러웠을 아래의 불상을 그리는 것. 그것이 강화백이 그림으로 복원하는 천불천탑의 염원인 것이다. 강화백은 단순한 조형물을 그리는 것보다 그 속에

“운주사의 와불이 일어서는 날 이 땅은 극락세계가 된다는 전설이 있지요. 저는 감히 그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는 날 이 땅은 기쁨의 부처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것. 그것이 강화백이 그림으로 복원하는 천불천탑의 염원인 것이다. 강화백은 단순한 조형물을 그리는 것보다 그 속에

깃든 간절한 염원과 애뜻한 삶의 이야기를 그리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미완의 운주사. 그 아름다운

정토의 아침이 올때까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며 강화백은 우리 시대의 혼란스럽음과 경각스런 죄악들을 소멸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제 자신이 확실한 불자의 길을 걸지 않은 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과 우리 시대의 어둠을 깨뜨리고 밝은 아침을 열어 달라는 기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림은 일체 그리지 않고 이 작업에만 몰두할 생각입니다”

막연한 도전, 그러나 강화백에 있어 그 도전과 운주사에

▲강연균화백이 운주사 천불천탑을 그려 부처님세상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불심시심 (5)

네 몸 같아 세상 맛에 섞여

攀雲躡石老青山 (나운거석로청산)	구름 잡고 돌에 앉아 청산에 녹어
物盡飄零獨耐寒 (물盡飄零獨耐寒)	은갖 일 다 저도 혼자 견디는 겨울
知爾碎形和世味 (지이쇄형화세미)	네 몸 같아서 세상 맛에 섞여오니
使人緣味學清寒 (使人緣味學清寒)	그 몸 따라 이 맑은 추위 알게 하는 소나무 (사인연미학청한)

이 시는 함허(涵虛)대사가 지은 송기밥(松皮飯)이란 시다. 소나무의 속껍질을 말려 갈아 삶아 섞은 밥이다. 흥년의 끼니를 때우는 먹거리이지만 이 시는 오히려 이러한 먹이를 미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먹거리의 소재가 소나무이기때 이 소나무의 청정함이 먹는 이에게도 청정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기구나 승구에 있어서의 늙은 소나무의 기상에서 배우는 겨울철의 고고함은 일반적 시인에게 있어서도 얻을 수 있는 상상이지만, 전 결구에서의 문학적 재치는 역시 선사로서의 사물관이라 할 수도 있겠다.

서리 모르는 고고한 맛을 세속의 곡식 맛에다 섞었다 하였으니 이름되면 선사의 자리에서 분명히 속인의 자리로 내려앉은 큰 자비의 몸가짐이기도 하다. 속인들에게 이 맑고 싸늘한 청빈을 맛보게 한다 하였으니, 이 고고한 소나무의 향내을

을 선미(禪味)로 대체한 것이다. 여기서는 청한을 배우게 한다(學禪味) 하였지만 이는 세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려 배운다. 형체를 갈아부순다 되비침이요 겸손이라 하겠다.

이렇듯 이 시는 송기밥이라는 소재로야 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인 듯 하지만 스님으로서 대종교화가 몸매 매이지 않고서는 쉽게 이루기 어려운 한 편의 시다. 형체를 갈아부순다 한 이 바로 자신을 부수 대중을 일깨울 수 있다는 큰 자비의 마음이다. 그것을 세상 맛에 섞는다 하였으니, 이 부수진 몸이 세속의 몸이 아님이 분명하다. 진리의 깨달음으로 세속의 모든 맛을 깨달음의 맛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대중구제를 자신의 목으로 포용하는 선사의 모습이 역력하다.

이 중 찬 (동대교수)

선종사연구 논문등 집대성

민영규 교수 「강화학...」 「사천강단」 펴내



○민영규 교수

연세대 민영규 명예교수의 논문과 저술을 묶은 전집 「강화학(江華學) 회후의 광경」 「사천강단(四仙講壇)」이 나왔다.(도서출판 우산)

위단 정인보(爲堂 鄭寅普)의 직계제자인 민교수는 불교학 이외에도 유학·종양사학·한국 서지학·서역학(書域學)·복식(服飾)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예가 깊은 학자로 유명하다.

강화학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제1권(강화학 회후의 광경)에는 「일연경(日蓮經)과 돈황(敦煌)의 변문(變文)」 「태고보우

의 대도(大都) 영녕사(永寧寺) 설법」 등이 실려있고, 제2권(사천강단)에는 「사천강단」 「사천강단승유(捨遺)」 「경인조당집인(景仁堂集眞)」 「불국사교골역대기」 등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특히, 민교수의 최근 10~20년간 관심사였던 선종사 연구 논문은 제2권에 담겼다. 선종사의 전개 현상이었던 중국 사천(四川)을 현지를 답사해 90년 이후 써왔던 「사천강단」 「사천강단승유」 등의 논문들은 한국불교사 해석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교수는 논문에서 그간 제도권 속의 한국불교가 '민중속으로'라는 종교 본래의 길로 부터 이탈했다고 주장하고, 신라 구산선종(九山禪宗) 이전부터 형성된 한국 선종사의 법맥이 어떻게 전개, 변천해 왔는가를 철저한 증거와 고증을 통해 분석했다.

녹수청산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녹수청산은 특유의 비법으로 한방 약재를 달이고 지리산 수제 녹차만 제공합니다.



녹수청산은 신형의 모임이나 소법회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따로 발심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에서는 청파 이은구 선생의 고급 분청자기를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차문화를 즐기시려는 분들에게 단체·기업 홍보를 위한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